

로컬뉴스



전북서부보훈청 전화모니터링 평가 우수 송호택 씨 선정

전북서부보훈청장은 민원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주기적 모니터링 시후교육으로 친절성 향상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실시한 전화 모니터링 평가 결과 우수자인 송호택 주무관을 최근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이달의 민원친절영웅 선정은 5개 평가지표별(신속성 15, 친절성 25, 만족도 50, 체감만족도 10)로 점수화하여 최고 득점자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우실 지청장은 “평가점수가 저조한 항목에 대하여는 전화응대 친절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에게 최대의 만족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교육발전재단 학부모 특강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오는 21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나만 몰랐던 진짜 공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연다.

‘나만 몰랐던 진짜 공부 이야기’는 공중과 방송에서 ‘진짜공부 비법’ 등으로 서울 강남에서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병훈소장의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특강으로 학습방법인 예습, 복습, 노트필기, 집중력, 암기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전략적 학습 기술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공부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경지재정리 사업현장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19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담당사무관을 초청, 경지재정리사업 예정지구 현장에서 ‘사업현장 설명’을 가졌다.

경지2지구 대대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 주변 농경지 염해피해를 줄이고 담수이용 확대를 위해 1983년 금강하구둑 축조를 시작으로 1990년 하구둑이 준공됐다.

금강사업단은 하구둑 준공으로 확보된 금강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용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지재정리, 배수개선, 용수공공사 등 2단계사업을 1989년 착수해 2015년까지 총사업비 8,491억원의 90%(인 7,67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대화된 콘크리트 수로 교체, 농로 확장, 용배수로 확장 등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에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신동 범죄예방개선사업 선정

익산시는 신동 일원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CPTED) 역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법무부에서 주관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함께 2014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공디자인 초기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하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익산시 신동 일원은 법무부 자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CCTV, 보안등, 방범 시설물, 안전벨, 골목길 환경개선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1억원이 지원되고, 동시에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롯데아울렛 입점 패션협동조합 제시 지역협력 상생방안

수백억 건물 무상 건립 합당한가

군산롯데아울렛 입점과 관련 ‘지역협력 상생방안’으로 수백억 대의 소규모 무상 건립을 요구한 군산패션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본보 7월 19일자 8면) 이 같은 상생방안을 제시한 군산패션협동조합이 군산롯데아울렛 입점지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일인이 설립한 조합이기 때문이다.

군산패션협동조합과 롯데아울렛 입점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A씨는 지역협력 상생 요구안을 대책위 명목이 아닌 군산패션협동조합 명의로 냈는지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온갖 추측과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군산패션협동조합이 제시한 지역협력 상생방안에는 사실상 소규모로인 상인회관을 군산시 상공인 전체가 아닌 패션협동조합에 가입한 특정인만 이용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다.

이들이 롯데아울렛 인근 부지에 건축을 요구한 지상 5층 건물에는 1·2층의 경우 협동조합원 운영 소매점이 라고 명시했다.

특히 상인회관 이용 자격 역시 ‘직접순회를 입는 상인은 군산패션협동조합에 가입, 상인회관 운영을 통해 아울렛 입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는 등 건물 입점을 조합원으로 한정시켰다. 문제는 군산시내 소상공인 태반이 이 같은 조합의 존재유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에서는 군산시 소상공인 다수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뒤로는 특정 소수를 위한 롯데아울렛 반대 운동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산패션협동조합은 대책위가 한창 롯데아울렛 입점 저지를 위해 집회를 벌였던 지난해 8월 20일 대책위원장

A씨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당시 조합은 법적 설립동일자 9명이 총 금액 360만원을 출자해 만들어지는 등 개인당 40만원이 출자된 셈이다.

군산시 중앙동 한 상공인은 “사실상 아울렛이 들어와도 취급하는 의류 품목에 차이가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션협동조합은 처음 들어보는 단체로 300억의 건축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류업 종사자 역시 “대책위 몇몇 위원은 상공인이 아닌 수백억 자산가인 건물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롯데아울렛 입점으로 자신의 건물 세입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체 상공인을 내세워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심산이다”고 비난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중국 하북성 지질대, 국제교류 활발

미술대 교수 작품 전시회 · 합작학과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하북성 지질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초청 작품전을 개최하고, 한중합작학과 신설 추진 등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대학 경쟁력 향상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20일까지 교내 송산기념관 1층 링크미술관에서 열리는 지질대 교수 작품 전시회는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축하 및 해외대학 작품 교류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시되는 작품은 전통적인 중국화로 알려진 풍경수묵화와 서예, 유화정물 등 50여 점으로 지역 그림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하북성 지역 작가 그림들은 중국 내륙에 위치한 자연풍광이 잘 어우러진 수묵정물의 붓 터치로 섬세한 그림묘사 및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교류협정을 체결한 원광대와 중국 지질대는 한중문화행사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중합작학과로 지질대에 60명 정원의 환경디자인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해 공동커리큘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3+1로 운영되는 한중합작학과는 중국 학생들이 4학년을 원광대에

서 이수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원광대 유학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질대 재학생 교수들의 원광대 박사과정을 비롯해 재학생 단기 어학연수와 대학원 석사과정, 교환학생 파견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전시회 개최식에 참석한 김도중 총장은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하북성 지질대 교수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작품전을 계기로 원광대와 지질대 간 교류의 끈이 더욱 깊고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경찰·기업체·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군산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발벗고 나섰다.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의회, 한국지엠 군산공장, 녹색어머니회 등 170여명은 19일 오전 차량 통행이 빈번한 수송동 푸른솔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했다.

특히 지역기업인 한국지엠은 임직원 40여명이 동참하여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들을 상대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운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며 힘을 보탰다.

김선홍 한국지엠 군산본부장은 “어린이는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이자 귀중한 보배이며 움직이는 신호등이다”면서 “완전차 제조공장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군산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에서 발생한 4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13건이 보행 중에 발생했고, 5건이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

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 기자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군산시 관광 브랜드네이밍 확정
‘Hello, Modern’ 사용 개인·업체 모집

군산시는 근대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시간여행도시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네이밍과 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Hello, Modern’ 관광 브랜드를 사용할 개인 및 업체를 모집한다.

‘Hello, Modern’ 관광브랜드 사용을 원하는 개인 및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군산시 관광진흥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께서는 제한이 없다.

시는 ‘Hello, Modern’처럼 지자체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점차 북도에서는 처음 만들어졌다는데 의미가 큰 만큼, 다양한 제품의

모집을 통하여 브랜드가 널리 사용되면 군산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브랜드 사용에 참여하게 될 업체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사용으로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윈윈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품격 있고 통일된 군산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제품에 관광브랜드가 사용되면서 군산시가 믿음 있는 도시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소방서 여름철 말벌활동시기 주의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때 이른 무더위에 말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집 제거 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시 관내 벌집 제거 출동건수는 올 7월 현재까지 1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5건에 비해 21.5% 증가하였고, 8월에는 무더고 습한 날이 많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수나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색의 옷을 착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말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수십 배에 달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박한규 119구조대장은 “본격적인 벌집 제거 신고가 들어오는 요즘 7월! 벌에 쏘였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빼내야 하며 얼음찜질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전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심한 알러지 증상(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농기센터 “벼 이삭거름 적기 시용하세요”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는 올해 벼 이삭배는 시기가 전년보다 하루 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삭거름을 적기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센터는 또한, 농업인들이 적기 이삭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벼 영양생장기간인 6월부터 7월 상순까지 기상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년 대비 적산온도와 일조시간이 많아 6월 1일 이상 기준으로 중만생종은 내달 16일경에 이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모로 이양한 논은 이보다 3~4일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삭거름은 시에서 공급한 맞춤형비료

로 10a당 15kg씩, 출수 25일에서 15일 전에 주어야 효과적이다.

거름기가 부족한 논은 이삭배기 25일전에 일 색깔이 진한 논이나 도복에 약한 품종은 이삭배기 15일전에 주는 것이 유리하며, 이모작은 8~9일 정도 늦게 주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삭거름을 일찍 주면 벼 마디가 길어져 도복에 약해지고 특히 군산지역 주 재배 품종인 중만생종 산동진벼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어린모 기준 8월 1일에 3일경에 도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가장 알맞은 이삭거름 시용시기 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평생학습축제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

익산시가 19일 마동도서관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익산시는 올해 7회를 맞는 평생학습축제의 기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각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특징을 살린 대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축제를 홍보하고, 소속된 학습동아리의 발표회 참가로 학습 성과를 선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각 기관·단체 실무자들은 그간 평

생학습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회의를 통해 익산시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며 “평생학습축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교육 정보와 성과 공유를 통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